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금주 미사 독서: 강후길 프란치스코, 이영주 크리스티나	+ <u>지난주 우리의 정성</u> 교무금 \$50 봉헌금 \$253 합 계 \$303
다음 주 미사 독서: 김선영 마리아막달레나, 정나미 모니카	
금주 미사 복사: 신승원 로이	
다음 주 미사 복사: 우상인 사비나, 강선우 마르가리따	
금주 미사해설: 김태진 하상바로, 윤지희 데레사	
다음주 미사해설: 윤지희 데레사, 조은경 수산나	* 매월 마지막 주는 2 차헌금이 있습니다.
반 주: 조은영 베다, 조은경 수산나, 황지혜 레지나	
회 계: 김정기 토마스 아퀴나스, 심윤필 베르나르도	
친교실 정리: 2 구역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미사 전까지.
성가대 연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성가대장: 석우경 안드레아, 고미현 다미아나
친교/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격주 금요일 저녁 7시 30 분 사제관 (5 월 4 일)
성모회 금요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오전 10 시 (장소는 성당 홈페이지 게시판 참조)
교리 모임	격주 토요일 오후 2 시 45 분 성당친교실 (4 월 28 일)
기타 모임	격주 금요일 저녁 8 시 홍진국 클레멘스 형제님집 (4 월 27 일)
† <구역모임 알림판>	
1 구역	매월 넷째주 토요일 미사 후
2 구역	매월 첫째주 토요일 미사 후
3 구역	매월 셋째주 토요일 미사 후
대학원 구역	미정
학부생 구역	미정
† 오늘의 묵상	
유다인 출신의 심리학자 빅토르 프랑클은 제 2 차 세계 대전 때에 나치에게 끌려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됩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짐승 취급을 받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여러 번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자신을 기다리는 아내를 만나야겠다고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그 목표는 그에게 술한 모옥과 고통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프랑클은 전쟁이 끝난 다음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씁니다. 그는 책에서 오늘날 가장 무서운 것은 삶의 가치를 잃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삶의 가치를 잃은 사람, 곧 실존적 공허에 빠진 사람은 돈이나 권력, 또는 쾌락으로 공허함을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삶의 가치와 의미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 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낙담하고 절망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부활은 하느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사랑의 절정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뻗속 깊이 체험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당신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박해와 죽음에 용감히 맞선다는 뜻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뎌 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었습니다.	

본당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사목회장
김태진 하상 바로로
(608) 628-7977

부활 제 3 주일



홈페이지
club.catholic.or.kr/thecccm
Facebook 그룹
매디슨한인천주교회
E-mail
kccmwi@gmail.com

2012 년 4 월 21 일

<제 1 독서> 사도행전 3,13-15.17-19

<제 2 독서> 요한 1 서 2,1-5 ㄴ

화답송

◎ 주님, 저희 위에 당신 얼굴 밝은 빛을 비추소서.
○ 저를 의롭다 하시는 하느님, 제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소서. 곤경에서 저를 구해 내셨으니, 자비를 베푸시어 제 기도를 들으소서. ◎
○ 너희는 알아라. 주님은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기적을 베푸신다. 내가 부르짖으면 주님이 들어 주신다. ◎
○ 많은 이가 말하나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 주라?” 주님, 저희 위에 당신 얼굴 밝은 빛을 비추소서. ◎
○ 주님, 당신만이 저를 평안히 살게 하시니, 평화로이 자리에 누워 잠드나이다. ◎

복 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 예수님, 저희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소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이 타오르게 하소서.

복 음

루카복음 24,35-48
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서 그들 가운데에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이드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 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 주셨다.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자, 예수님께서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그때에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체송]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셨으니, 그의 이름으로 회개와 죄의 용서를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하여라. 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시작:139 봉헌:220 성체:180 파견:129



여러분은 어떤 가난을 살고 있습니까?

[가톨릭신문, 2012년 2월 5일, 이용훈 주교(수원교구장)]

‘부(富)나 자산(資産)이 있는데도 가난하다.’

예전 같으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 법한 이런 말이 근래에는 일상적이거나 상식으로까지 통하는 현실과 대면하면서 우리는 가난과 부라는 개념이 모호해 매우 혼란스럽게 느껴집니다. 가난이라는 개념도 그 시대의 사회 현실과 경제를 둘러싼 다양한 양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주위에서는 집이 있지만 오히려 집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하우스 푸어(house poor)’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이라는 드러난 자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임에도 곤경을 겪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식교육으로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리타이어 푸어(retire poor)’, 곧 은퇴라는 말은 물론이고 스스로를 ‘리빙 푸어(Living Poor)’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가계 소득이 줄어들었는데, 육아 교육 등에 갈수록 돈이 많이 들어 이러저런 대출로 힘겹게 생계를 이어가는 ‘생활의 빈곤’ 상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젊은 세대를 가운데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된 ‘잡 푸어(job poor)’는 취업 준비를 위해 학원에 다니고,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돈을 많이 지출하는 경우입니다. 취업을 위해 이른바 스펙을 쌓는 비용까지 포함시킨다면 사실 오늘날의 ‘잡 푸어’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이비 푸어(baby poor)’라는 용어는 출산으로 인한 양육비, 교육비 등 아이들을 위해 지출되는 돈들로 인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노후 대비는커녕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빈곤하게 살아가게 되며, 그 가난을 다음 세대에까지 물려줘야 하는 현재의 우리나라 젊은 부모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부각되고 있는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워킹 푸어(working poor)’가 아닐까 합니다. 말 그대로 직장은 있지만 날로 확산되는 비정규직과 저임금 등으로 인해 가난의 굴레를 벗지 못하는 이들을 지칭하는 ‘워킹 푸어’는 경제난과 맞물려 증가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가구 구성원 가운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서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측정한 평균가구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가 해당됩니다. 이들 ‘워킹 푸어’는 쉬는 날 없이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요즘 청년층들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열악한 소득으로 인해 ‘워킹 푸어’로 내몰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취업난으로 인한 고통이 가장 심한 청년층(20~30세)의 임금 수준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취업 대란의 영향으로 일자리를 찾는다고 해도 주로 저임금 산업에 종사하는 탓입니다. 이처럼 가난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들이 많은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여러 가지 양상의 가난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난으로 인한 문제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가난의 진정한 의미와 정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회가 강조해온 가난의 정신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재물과 재능의 마지막 주인은 하느님이시고 인간은 관리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 사람은 잠시 관리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이 재물과 재능을 좋은 일에 잘 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나만 배부르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이기적 욕망과 교만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를 통해 이런 과도한 욕심과 교만이 숏한 죄악을 낳아왔음을 보아왔습니다.

따라서 하느님을 아버지로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곤경에 빠져 신음하는 사회와 이웃 형제를 도우며 사는 가난의 정신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힘든 때일수록 스스로에게 자주 물어보아야 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가난을 살고 있습니까?’

† 공지사항

- 4월 공동체 식사는 없습니다. 부활 전야 미사 식사로 대신하였습니다.
- 모금하신 Rice Bowl 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 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주 미사 후 사목회의가 있습니다. 사목위원, 각 구역장님, 성모위원님 참석 부탁드립니다.
- 매월 마지막 주는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진정한 부활은 영원한 희망을 간직하는 것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장

20여년 전 한국선원 한 명이 홍콩을 떠나 대만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새벽에 갑판에 나가 그날의 일과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만 큰 파도가 갑판을 덮쳐 바다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파도를 헤치고 배를 향해 필사적으로 나가며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를 쳤지만 배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결국 망망대해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구명조끼는 고사하고 어느 것 하나 몸을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곧 추운 파도보다 더한 공포감이 몰려왔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시간이 지나며 근육마비 증세마저 나타나 물에 떠 있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습니다. 몸이 점점 힘들어지며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순간 그는 어린 딸들과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동시에 무조건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 달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어 바다와 사투를 벌였습니다. 결국 18시간 동안의 표류 끝에 극적으로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오늘날 가장 무서운 절망은 삶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비해 현대는 문화와 물질문명이 발달해서 의식주는 더 풍족해졌지만 많은 사람이 삶의 가치를 잃어버려 방황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전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본질은 희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 앞에서 구운 물고기를 잡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음식을 잡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큰 고통과 절망 속에서 믿음을 잃고 헤매더라도, 주님이 살아계심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큰 기쁜 소식이 됩니다. 또한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당연히 세상에 주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이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고, 삶의 의미를 확실하게 심어주었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처럼 우선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 길은 매우 어려운 길이지만 진정한 행복과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자비로우신 그분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귀를 열고 눈을 크게 떠서 그분을 한번 찾아보시지 않겠습니까?